



강진만 자연산 굴캐기

추위가 한 발 누그러진 지난 6일 강진군 신전면 사초마을의 강진만 개펄이 썰물로 모습을 드러내자 한 아낙이 통통하게 자란 자연산 굴을 부지런히 따고 있다.

(강진군 제공)

‘공예산실’ 장흥 전남목공예센터

개관 2년만에 관광객 60만명·매출 14억 지역경제 활성화

목조각 전시회·목공예품 토요경매 등 볼거리도 다양

장흥 역불산 일대에 조성된 전남목공예센터가 개관 2년 만에 매출 1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도는 6일 “전국 최대 규모의 전남목공예센터가 개관 2년 만에 관광객 59만명이 다녀가고, 판매액도 14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남목공예센터의 지난해 관광객은 32만7000여명에 달해 2011년(26만3000여명)에 비해 24%나 늘었고, 판매액도 8억3400만원으로 전년(5억7500만원)보다 45%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5만명의 관광객이 목공예센터를 방문해 판매액이 1억2000만원으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남목공예센터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공예인들에게는 선풍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에 문을 연 전남목공예센터는 목공예 공방, 기획전시실, 교육 및 체험장, 전시판매장을 갖추고 지역 특화자원인 편백나무를 이용해 다양한 목공예품을 생산·판매하

고 있다.

목공예 공방에서는 장난감, 서각, 가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목공예품을 생산해 전시판매장에서 관광객을 사로잡고 있다. 또 기획전시실에서는 국내 우수목공예 작가의 작품을 주기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오는 2월 말까지 ‘나무와의 이야기 소통’이라는 주제로 목조각 전시회가 열린다.

지난해 4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매주 목공예품 토요경매행사를 열어 도내 우수 목공예작가의 작품을 시종각의 50% 수준에서 판매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목공예센터 성공을 계기로 공예 전반에 대한 시책 개발과 각종 지원 등 공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목포대교 주탑 선박 충돌 대비 허술

교각 밑부분 충돌 방지공 더 설치해야

지난해 개봉한 목포대교 주탑에 선박 충돌 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목포지방 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3300억원을 들인 목포대교 주탑 높이는 170m로 초속 74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됐으나 선박

이 오가는 교각 밑부분은 충돌 대비 허술해 관계기관에 충돌 방지공을 더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탑 하단부 교각 한쪽에만 선박 충돌 대비 보호공이 설치돼 있으나 반대쪽에는 흙과가 의문스러운 충격 흡수시설인 ‘팬더’만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인천대교는 10만t급 선박 충돌에 대비해 주탑 양쪽은 물론 주변 교각까지 모두 충돌 방지공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대교 밑으로는 지난해에만 1만t급 이상 대형선박 120여 척이 통과한 바 있다.

목포도선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목포대교 밑은 대형 선박이 변질(곡선 항해)을 해야 할 위치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kjs0533@

새해 새 설계

김철주 무안군수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박차”

“새해에도 ‘군민 위한 감동 행정, 잘사는 행복 무안’ 건설을 최고의 군정 목표로 삼고 무안군 발전을 위한 군정 주요 현안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군민을 섬기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철주(57) 무안군수는 2013년도 군정 운영방향으로 ▲장기개발 촉진 ▲농어업인이 잘사는 농어촌 ▲교육 걱정 없는 무안군 ▲모든 군민이 함께 누리는 행정을 제시했다.

먼저 김 군수는 서해안선을 따라 관광도로를 개설하고, 동쪽으로는 회산연꽃방죽을 중심으로 영산강변을 따라 4계절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 무안의 신성장동력을 만들 방침이다.

자연·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성·개발, ‘관광’을 통해 무안군민의 소득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비 3000억원이 투입되는 삼향 마동~해제 도리포~현경 해운리를 연결하는 해안관광 일주도로(연장 231.8km)와 관광거점을 만드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등 10억원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 영산강변을 따라 자전거길, 강변도로와 연계된 영산강역사문화체험 전통 뱃길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전통 용기마을



그는 지역 농수산물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육묘용 상토 확대 공급, 생태형 동별 설치 지원, 양파 마늘 기계화 시범단지 확대 조성, 임대용 농기계 대폭 확충, 친환경 유기농업의 집중 육성, 양파의 약리작용 연구 등 농업대책도 내놓았다. 수산분야에는 복길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톨매리 지방어항 건설, 김·낙지 등 수산물 포장재 공급, 어선 유류 절감장치 설치 지원, 축산 분야에는 한우특구 지정,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 확대 조성, 동물복지형 가축사육 환경 조성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420억원의 예산으로 2014년 개교예정인 무안거점고등학교와 자립형 공립고인 남악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군비 10억원을 승달장학금에 출연하는 등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2014년 무안에서 열리는 제53회 전남체전을 대비해 무안읍~스포츠파크 간 자전거도로 개설, 생활야구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가 조성, 실내체육관과 공도장 개보수 등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올해 대회조직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모두가 행복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는 군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25,000원 / 33,000원 / 40,000원 / 50,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남녀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가발중얼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뿜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종-0819호 (광교)
www.indara.co.kr 광주은행 6층신세계대화점사(가)광주점 062-368-5075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찢어지고 눈알이 아파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알이 부어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열구리가 걸리거나 아파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